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방과 후 미술프로그램  
수업지도안연구

- 한국화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부 지 혜

2015년 8월

방과 후 미술프로그램  
수업지도안 연구  
- 한국화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곽 정 명

부 지 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부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8월

After School art lesson plans study program  
- Focusing on Korean painting expressive activities -

Ji-Hye Boo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Gwa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5.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ung-Myung Gwak, Prof. of Art Education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방과 후 미술프로그램 수업지도안 연구  
- 한국화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

부 지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곽 정 명

미술교육은 미적체험, 표현의 즐거움, 새로운 창조, 등의 경험을 통하여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고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학생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전통미술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9차 교육과정까지 미술과 각 영역마다 전통미술을 지도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미술 교과서는 디자인, 조각, 현대미술, 서양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 미술인 한국화 수업은 교사들이 기술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습형태로 인해 아동들이 전통미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화는 낮설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정규 미술수업보다 제약이 적은 방과후학교 미술활동을 통하여, 학교 미술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부터 주제적 문화의식 교육의 일환으로서 한국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제주시 ‘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정 아동 1·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여 전통예술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들은 한국화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화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한국화 관련 문헌을 탐색하여, 아동들이 한국화의 특징과 표현 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고, 초등학교 한국화 교육에 적합한 시청각 자료와 학습지도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지도안에 따라서 실제 한국화 교육과정에 적용하였다. 한국화 표현양식을 소재에 따른 장르별 특징으로 나누어 교육함으로써,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고취시키는 동시에, 아동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

셋째, 어려운 용구의 활용에 있어서도 붓으로만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붓 이외에 이쑤시개, 면봉, 붓펜 등의 여러 가지 용구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의 다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재료와 용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한국화 수업을 통해서 아동들은 전통문화와 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한국화 역시 책이나 미술관에서만 감상하는 예술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우리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며, 한국화를 이해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국화 교육을 계승하여, 아동들이 새로운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적응력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초등학교에서 바람직한 한국화 교육이 이루어 질 때 전통문화에 대한 민족정신을 배울 수 있고, 더불어 국제경쟁력 시대에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다.

---

※ 본 논문은 201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 목 차 >

국문초록 .....	i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b>II. 방과후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b> .....	4
1. 방과후학교의 개념 .....	4
2. 방과후학교의 목표 .....	8
3. 방과후학교의 필요성 .....	10
<b>III. 한국화의 이론적 배경</b> .....	13
1. 한국화의 개념 .....	13
2. 한국화의 분류 및 특징 .....	16
<b>IV. 한국화 수업을 하기 위한 미술수업 교수-학습</b> .....	31
1. 미술수업 지도방안 .....	31
2. 한국화 활동을 위한 사전조사 .....	35
3. 학습지도안 및 학습결과물 .....	38
4. 한국화 수업 후 종합논의 .....	55
<b>V. 결론</b> .....	58
참고문헌 .....	60
Abstract .....	62
부    록 .....	65

## 표 목 차

<표-1>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과정 .....	6
<표-2>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11
<표-3> 수업모형 .....	33
<표-4>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	34
<표-5> 산수화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	38
<표-6> 산수화 작품평가 .....	40
<표-7> 초상화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	42
<표-8> 초상화 작품평가 .....	44
<표-9> 영모화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	45
<표-10> 영모화 작품평가 .....	47
<표-11> 풍속화 교수-학습 과정안 (4차시) .....	48
<표-12> 풍속화 작품 평가 .....	50
<표-13> 민화 교수-학습 과정안 (5차시) .....	52
<표-14> 민화 작품평가 .....	54



## 그림 목 차

<그림-1> 방과후학교 진행 계획 .....	8
<그림-2> 김홍도의 [주부자시의도 중 월만수만도] .....	16
<그림-3> 추사김정희의 [세한도] .....	17
<그림-4> 정선의 [금강전도] .....	18
<그림-5> 조영석의[조영복선생의영정] .....	19
<그림-6> 김명국의 [달마도] .....	19
<그림-7> 윤두서의 [자화상] .....	20
<그림-8> 신사임당의 [초충도] .....	21
<그림-9> 조속의 [노수서작도] .....	22
<그림-10> 이암의 [화조구자도] .....	23
<그림-11> 김식의 [우도] .....	23
<그림-12> 변상벽의 [묘작도] .....	24
<그림-13> 신윤복의 [단오풍정] .....	25
<그림-14> 김홍도의 [씨름도] .....	26
<그림-15> 김득신의 [과적도] .....	26
<그림-16> 강희언의 [사인삼경-사인휘호] .....	27
<그림-17> 작가미상의 [십장생도 10곡병] .....	28
<그림-18> 작가미상의 [까치와호랑이] .....	29
<그림-19>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8폭 병풍] .....	2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시행중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가, 사회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대와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창의성과 인성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건은 미술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술교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주요과목의 시수 증가로 인해 미술교육 시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여건이 좋지 않으며, 학생들 역시 미술을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미술교과의 대부분도 서양미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통미술을 비롯한 한국화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국화 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해, 한국화 수업이 작품 감상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역별 수업을 하더라도 전공교사의 인원 부족과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즉 미술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학교의 정규 수업과정으로 배분된 시수로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미술 수업은 본래의 교육 목표에 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1995년 이후 새로운 학교교육 방안으로서 학습자 개인의 특기 및 적성 계발과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의 절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의 발견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학년이나 학급별 분반 없이,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지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함으로써 현 교과과정에 필요한 문제로 지

적되는 사회성 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단조로운 학교정규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 현 학교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화를 경험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방과후 학교 미술시간을 통해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를 배우며 전통예술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한 독창성과 그 가치를 학생들이 인식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한국화 프로그램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한국화 수업을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실제수업에 적용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며, 다양한 도구의 사용을 통하여 아동들이 한국화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초등 미술교육과 관련된 단행본,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수업 전에 한국화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사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시켰으며, 아동들의 작품을 통해 교육 결과를 분석 할 것이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도와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II 장에서는 방과후학교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방과후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I 장에서는 한국화의 개념과 분류 및 특징을 살펴본 뒤, 조선시대 회화의 소재에 따른 장르별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에 의거하여 실습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논문의 제한점은 한국화의 범위를 조선시대의 장르별 특징에 초점을 맞췄으며, 연구 수업의 대상은 제주시 'ㄱ'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창의미술 1,2학년 50명이며, 5차시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 II. 방과후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방과후 미술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방과후학교 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살펴본 뒤, 그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방과후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방과후학교의 개념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바람직하고 심신이 건강한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도 하에 진행 중인 국가사업이다.

‘방과후학교’란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 교육체제를 표방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sup>1)</sup>를 의미한다. 먼저 이러한 방과후학교 사업의 명칭과 세부 방침의 연도별 변화 과정을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 2월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해 사교육비절감·방과후 아동보호·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방과후학교’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입·적용하였다. 그리고 현재 방과후학교는 자율화 조치에 따라 지역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되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기존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보다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를 개설해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점차 학부모의 요구도 확대되고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방과후 학교’

있다.<sup>2)</sup>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전환해 ‘방과후학교’체제를 도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 개방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자율화계획’<sup>3)</sup>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로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추진체제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방과후 학교는 교육청이 수립한 시·도별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희망하는 학생에게 프로그램과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지역주민까지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 및 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연계 활용하며,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외부기관(단체)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였다.<sup>5)</sup>

2012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이 진로·진학 희망에 따라 계획적으로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을 선택하도록 지원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팍)<sup>6)</sup>에 특기·적성뿐만 아니라,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한 방과후학교 활동 교과프로그램의 내용과 이를 통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방과후학교 정책의 변화는 다음의 <표-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정평가원. p.71

3)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4) 교육과학기술부(2009), 상계서, p.5

5) 김홍원(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32

6)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팍):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4가지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활동내용과 자기소개서, 방과후학교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과 외 활동에 학생이 성실히 참여한 과정과 결과를 담은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7) 서울시 교육청(2012),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p.4

<표-1>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과정

시기/정책	내 용	용 어
1995. 5. 31 ‘교육개혁’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 시하기 위한 방안	방과후 교육활동
1996. 2 ‘방과 후 활동 활성화 방안’	-개인의 소질, 적성, 취미, 특기 신장 및 사교육 비 절감 목적 -시·도교육청별로 ‘방과 후 교육활동’이란 명칭 으로 각 급 학교에서 실시 -의무적 보충수업 폐지 -특기·적성 계발활동 및 보충자율 학습을 포함 한 개념으로 사용	
1997. 6. 2 ‘과외대책을 통한사교육비 경감 방안’	-방과 후 교육활동 확대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탁아 기능 포함	
1999. 2. 10 ‘특기적성 교육활동운영 계획’	-보충 자율학습의 단계적 폐지 -방과 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 교육으로 명칭 변경 -입시위주 교육 탈피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소 질 계발 강조	특기·적성 교육
20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준별 보충 수업 다시 추가 -수준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허용, 방과 후 교 실로 명칭 변경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도 포함	방과 후 교 실
2005. 3	-방과후학교 개념 및 시범도입 -연구학교 시행: 전국48개 연구학교	방과후학교

<p>2006.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방과후학교시 범학교운영’</p>	<p>-수요자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 특기적성 교육,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을 총칭하여 ‘방과후학교’로 통합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시범학교(연구학교), 시도육청 지정 시범학교 운영</p>	
<p>2007. ‘방과후학교 운영기본계획’</p>	<p>-방과후학교 전면 시행 -방과후학교 전면시행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구축,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p>	
<p>2008. ‘학교자율화 방안’</p>	<p>-교육청이 수립한 시도별 운영계획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운영 허용</p>	
<p>2009. 6. 3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p>	<p>-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방안 제안 · 운영 시스템 체계화: 학부모 코디네이터 활용, 엄마폼 멘토링제 도입, 대학생 및 군장병 활용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프로그램 다양화: 수준별 교과 보충·심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층 지원: 초등보육 기능강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추진</p>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9)

이를 종합하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교육 및 돌봄 활동,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심화·보충학습, 초등보육 프로그램,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학교 계획에 따라 일



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2012년 주요사업계획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sup>8)</sup>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재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상 학생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1인 연간48만원 이내)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 2. 방과후학교의 목표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교육 정책에 의거하여, 제주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 및 적성을 계발하여 학교교육기능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비전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의 2015년 방과후학교 진행 계획은 다음의 <그림-1>와 같다.

<그림-1> 방과후학교 진행계획



※출처: 2015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주,

제주도교육청 (<http://www.jje.go.kr>)

8)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 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 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그림-1>에 나타나는 것처럼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학교 실현’이라는 4가지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 교육과정 내에서 시수가 줄어든 예체능 교육을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함으로써 교과외 심화·보충 및 소질·적성·진로 계발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다.

교과시간과 특별활동만으로는 학생들의 심화학습과 보충학습, 취미와 특기를 계발시키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충족되지 않는 교육욕구는 사교육(학원·과외수업)을 통해 해결되어 왔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 외의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도록 유도한다.<sup>9)</sup> 이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심신이 건전한 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10)</sup> 현 교육 실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교육 이외에 받는 사교육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고착·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이와 같은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종일 돌봄 교실과 같은 각종 돌

9) 교육부(2009), “2009년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2

10) 이은화(2010),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개선방에 대한 강사의 인식연구”, 건국대학교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p.10

봄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여건을 지원하고, 아동들이 방과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지자체 · 대학 등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할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설정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한다.<sup>11)</sup> 이는 방과후학교가 가진 지역사회 배움터로서의 기능, 즉 교육의 기능을 대폭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단순히 정규수업을 시행하기만 하는 그 동안의 정태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공교육 이외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평생학습을 시행하는 폭넓고 적극적인 운영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양극화 해소, 그리고 정규수업 이외에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복지와 보육의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다.

### 3. 방과후학교의 필요성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축적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것만을 추출하고 재조직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식의 활용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확장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주요과목을 비롯해 예체능 계열의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접할 수 있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개성을 다방면으로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은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체능과목의 시수는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그 활동시간이 부족하고 효과가 미흡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

11) 배상훈(2006), 방과후학교는 우리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교육개발. 겨울호(1), 한국교육개발원, pp.20-22

안할 수 있다.<sup>12)</sup>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정규교육과정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그 구체적인 연계성과 방법을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이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과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요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과 더불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공통된 의견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현상이라는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생이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음의 <표-2>과 같이 나타난다.

<표-2>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사교육 참여율 (%, %p)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차
전 체	201,266	190,395	-5.4	24.0	23.6	-1.7	71.7	69.4	-2.3
초등학교	90,461	77,554	-14.3	24.1	21.9	-9.1	84.6	80.9	-3.7
중학교	60,006	61,162	1.9	26.2	27.6	5.3	71.0	70.6	-0.4
고등학교	50,799	51,679	1.7	21.8	22.4	2.8	51.6	50.7	-0.9

※출처: 통계청([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12)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 2014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12월 호/ 통권32호)

통계청은 2012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 1,065개 학교의 학부모 약 4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 및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전체규모는 대략 19조원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9천원으로 전년도인 2011년 통계치인 24만 1천원에 대비하여 1.7%감소하였지만, 중학교 5.3%, 고등학교 2.8%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과정별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0.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70.6%, 고등학교가 50.7%순으로, 고등 과정으로 진학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결국 현 교육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사교육 열풍으로, 이는 방과후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구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차별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에 상응하는 질 높은 강좌를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보충 심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학교를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던 교육의 기능을 보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올바른 인재상을 확립할 수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사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현 교육의 문제를 회복하고 올바른 교육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보다 조직적으로 확장하여 그 기반을 확실히 다질 필요가 있다.

### Ⅲ. 한국화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미술 수업과정에서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자한다. 그 중에서도 회화 양식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조선시대의 회화를 중심으로 표현 양식의 시기별 특징, 소재와 형식에 따른 장르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 1. 한국화의 개념

한국의 화화는 다른 미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긴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 변천해 왔다. 선사시대의 선각화(線刻畫)를 비롯하여, 붓으로 먹이나 안료를 사용하여 천 또는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른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화의 기원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4세기경부터 이미 고분의 벽면에 주인공의 초상화나 당시의 생활상과 종교관을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들이 활발하게 그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의 회화의 시원은 4세기 이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런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회화는 줄곧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며 다양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시대에 따라, 때로는 지역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화풍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회화에 내포되어 있다.<sup>13)</sup>

이러한 특징을 지닌 회화가 다양한 양상을 띠며 활발히 전개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이며, 유교를 기본으로 했던 시대적 회화는 인물, 산수, 영모, 화조 등 가장 다양하게 발달했다. 이 시대의 회화의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도 특히 조선초기의 안견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룩한 이른바 안견파 산수화, 이암 · 김식 · 변상벽 등에 의해 발전을 본 해학적인 영모화, 조속 · 조지운 부자를 위시

13) 안휘준(2001),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p.29

한 중기 화가들이 그린 정서적인 수묵화조화, 그리고 이정 · 어몽룡 등의 중기 화가들에 의해 독특하게 발전된 묵죽, 묵매, 묵포도 등은 조선 초중기의 회화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한국적인 특색을 뚜렷하게 형성했음을 입증해 준다.

안견파의 산수화는 흩어진 경물들로 조화를 이룬 구도, 넓은 공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 짧은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단선점준 등 조선 초기회화에서만 볼 수 있는 화풍을 형성했고, 일본의 15세기 무로마치 시대 산수화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14)</sup>

조선 중기는 특히 산수화 분야에서 한 화가가 한 가지 화풍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두세 종류의 화풍을 수용하여 그리는 경향이 강했다. 김시, 이정근, 김명국, 이정 등의 이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안견파 화풍, 절파계 화풍 또는 미법(米法)산수화풍 등을 넘나들었던 것은 이러한 풍조를 잘 말해 주고, 한 가지 화풍이나 분야를 붙들고 천착했던 화가들도 적지 않다. 절파계 화풍만을 수용하여 그린 이경윤, 우도를 전문으로 그렸던 김식, 수묵 화조를 주로 그렸던 조속과 조지운 부자, 묵죽의 이정, 묵매의 어몽룡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조선중기의 화가들이 보여주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은 다 같이 취할 점이 있으며, 현대를 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sup>15)</sup>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대의 회화는 비교적 전통성을 강하게 띠면서 어지럽던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회화의 뚜렷한 독자적 양식을 남겼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회화를 특히 애정 어린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후기에는 정선일파가 새로운 남종화법을 소화하여 우리의 산천을 그리는 진경산수를 발전시켰고 김홍도와 신윤복 등이 당시의 생활상을 더 없이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풍속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이룩했다. 이밖에 강세황과 이인상의 격조 높은 남종화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시대의 회화는 민화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높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회화는 답답한 구도를 기피하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14) 안휘준(2001),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pp.310~311

15) 안휘준(2001),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pp.189~191

는 요란한 색채를 피하는 경향도 주목된다. 동물화나 풍속화, 그리고 화조화 등에서는 유머 또는 해학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점도 괄목할 만하다.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 양반사회가 붕괴되고, 과거제도가 폐지되며, 우리나라 회화는 근현대기적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1910년 때부터 1950년대까지 1차과도기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2차 과도기로 보는데, 1차 과도기 시대의 화가들은 일본을 통해 서양화를 접하거나 또는 일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양화로부터 ‘우리다운 그림’을 모색하였다. 2차과도기의 화가들은 직접적으로 서양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화’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sup>16)</sup>

이와 같이 ‘한국화’라는 말이 일반에게 널리 쓰이게 된 것은 폐지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대신하여 1982년에 개최된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종래의 전통미술 양식부문 응모분야를 ‘한국화 부문’으로 지칭하면서 비롯되었다. 때마침 개정된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 제4차 교육과정 개편 본에서도 ‘한국화’라는 용어를 종래의 ‘동양화’에 대체 사용하면서부터 더욱 일반화되었다.

---

16) 박용숙(2001),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p.19



## 2. 한국화의 분류 및 특징

한국화는 소재와 형식에 따라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초충화, 풍속화, 민화 등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산수화



<그림-2>김홍도의 [주부자시의도 중 월만수만도], 비단에 열은 채색, 1800년, 개인소장

산수화는 산, 물, 나무와 바위, 폭포, 호수, 구름, 비바람 등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회화 양식을 대부분 산수화라고 한다. 그러나 동양의 산수화는 이와 유사한 서양의 풍경화와는 달리 단순히 자연경관에 대한 모사가 아니다.<sup>17)</sup>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노장사상의 자연관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다.

산수화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한다. 화풍과 시기에 따라 각각 북종화와 남종화, 그리고 관념 산수와 진경산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가의 신분이나 화풍에 따라 북종화와 남종화로 나뉜다. 조선시대에는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도화서라는 관청이 있었으며, 여기서 속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화원이라 하였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김홍도, 신윤복, 안견 같은 사람이 화원출신이다. 화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수준의 예술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기교적인 면을 극도로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양식을 북종화라 한다. 이에 비해 남종화는 주로 사대부 선비들이 교양 측면에서 그린 회화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학문과 수양에 정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여가 활동으로서 그림을 즐겼다.

17) 이원복(2005), 한국美의 재발견·6, 술, p.23

우선 북종화풍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조의 총애를 받은 화원인 김홍도의 월만수만도<그림-2>를 들 수 있다. 조선중기에는 산수화의 정경과 풍취를 주로 베풀어 장면으로 묘사하는 무이구곡도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양식이 널리 성행하였다.<sup>18)</sup> 그러나 김홍도는 이와는 달리 배와 인물을 배제한 채, 달과 물의 배치만으로도 그와 같은 고상한 정취의 경지를 표현하였다.



<그림-4> 추사김정희의 [세한도], 종이에 수묵, 1844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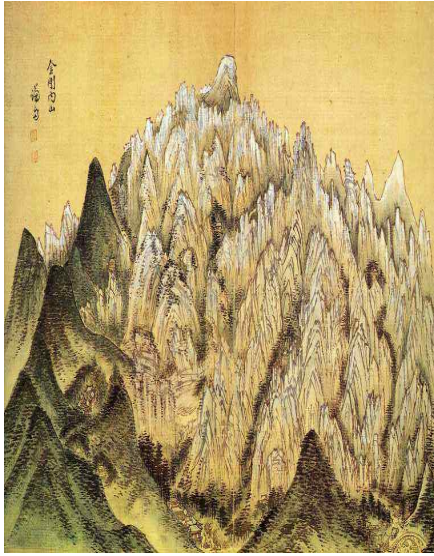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전반에 남종문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하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된다. 남종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추사김정희의 세한도<그림-3>를 들 수 있다.

이 그림은 김정희가 59세 때 인 1844년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제자 이상적이 자신을 대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여 그린작품이다.

화면에는 여백이 많아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듯 보이고, 허름한 집 한 채와 나무 네 그루뿐이다. 까슬까슬한 마른 붓으로 쓸듯이 그려낸 그림에서 염량세대의 모질고 차가움, 곳곳이 역경을 견뎌내는 선비의 울곧고 견정한 의지, 옛 스승을 생각해 주는 제자의 따듯하고 고마운 마음이 보인다.

다음으로 산수화의 시기별 구분에 따라 관념산수와 진경산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관념산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나, 화가가 심상을 통해 상상한 자연 경관을 화폭에 옮긴 작품 양식이다. 그 대표작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진경산수는 상상에 의존하지 않는, 즉 실재하는 경치를 그대

18) 고연희(2013),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다섯수레, p.139



<그림-4> 정선의 [금강전도], 종이에 담채, 1734년, 리움박물관

로 화폭에 옮기는 산수화 양식이다. 진경산수는 당시 화단의 가장 대표적인 회화 양식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그 영향력은 현대 한국 화단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경산수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정선을 들 수 있다. 그는 중국 고화의 모방에서 벗어나 독창적이면서 강인하고 세찬 맛을 주는 필법인 검재준법을 창시하였으며<sup>19)</sup>, 조선 산천의 다양한 실경을 화폭에 담는 데에 전념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정선의 금강전도<그림-4>는 금강산의 전경을 한 화폭에 모두 담는 대담한 구도가 돋보이며 태극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sup>20)</sup>

옛사람의 생각 속에 산수는 ‘현실보다 좋은 곳’, ‘정신적 경지가 높은 곳’이었다. 산수화는 그 시기와 화풍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공통적으로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소박한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2) 인물화

인물화란 사람의 얼굴이나 활동 모습을 소재로 삼은 그림이다. 인물화의 시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벽화에는 무덤에 묻힌 인물의 초상을 비롯하여 무용도, 씨름도, 수렵도, 행렬도 등 다양한 풍속 인물화가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인물화가 다양한 특색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21)</sup>

왕이나 사대부들의 초상화는 물론, 선비들의 지조와 기품이 깃든 고사인물화와 도석인물화가 특히 성행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상화는 넓은 의미에서는 인물화의 범주에 속하지만 특정한

19) 허영환(1978), 동양화 1000년, 열화당, p.141

20) 오주석(2003), 한국미특강, 술출판사, p.242

21) 장세현(2014), 전개서, pp.158~159



<그림-5> 조영석의[조영복선생의 영정], 비단에 채색, 1725년, 경기도 박물관



<그림-6> 김명국의 [달마도], 종이에 먹, 1643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인물을 대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일반 인물화와 구별된다.<sup>22)</sup>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장려되었다. 초상화는 사실주의 미술의 극치였으며 정직한 표현을 중요시하였고 대상 인물의 외면적 모습은 물론이고 그의 성격, 교양, 인품 등 정신적 내면세계까지도 표출시키는 전신사조를 지향하였다.<sup>23)</sup>

인물화에서 당대의 제 1인자였던 조영석은 그의 친형인 조용복의 초상화 <그림-5>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초상화 가운데 양손을 드러내서 그린 몇 안 되는 그림 중 하나로, 붉은 세조대에 부채를 걸고 손을 내민 독특한 자세로부터 음영표현이 없는 담담한 선묘까지 문인 취향이 격조를 풍긴다.<sup>24)</sup>

일필휘지로 가슴속에 품은 생각까지 끄집어내고자 했던 신틸 김명국 달마도<그림-6>은 조선중기의 화가이다. 그는 오직 신들린 붓 하나로 종 6품의 도화서 교수직에 올랐다. 타고난 성품이 대범하고 호방하며 해학적이었다. 그의 또 다른 호는 취옹(醉翁)이다. 두주불사(斗酒不辭), 즉 취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았다는 그

22) 안휘준(2001), 전계서, p.37

23) 안휘준(2010), 청출어람의 한국미술, 사회평론사, p.209

24)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다시 보는 우리초상의 세계 - 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p.85



<그림-7>윤두서의 [자화상], 종이에 수묵담채, 17세기 후반경, 개인소장

는 타고난 자유인이었다.<sup>25)</sup>

또한 조선후기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던 화가 공재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 <그림-7>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자 불후의 명작이라 일컬어지며,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또한 특이하게도 좌우 대칭을 이루는 인물의 정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점이 부각된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이와 같은 좌우대칭 형태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보이기 어려우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부상시킨다. 그에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

며 휘어져, 두상 전체에 볼륨감을 더해준다. 그런데 작품 속의 인물은 극사실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찾아볼 수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과도 같이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찌면 옥에 간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sup>26)</sup>

기존의 형식과는 달리 자신의 두상만으로 화폭을 가득 채운 모습에서 작가의 강인한 기상이 느껴진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온전히 작품에 붙여넣은 듯, 기운생동 하는 사색적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 3) 화조화

화조화의 종류는 다양하다. 꽃이나 풀을 그리는 화훼화, 새 대신 매미, 벌, 나비

25) 박영대(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그림 백가지, 현암사, p.146

26) 오주석(1999),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1 술출판사, pp.84~87



<그림-8>신사임당의[초충도], 종이에 채색, 1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등 곤충류를 그리는 초충화가 있으며, 꽃이나 나무를 새 개신 개나 고양이 및 토끼, 사슴 등 다른 짐승과 함께 배치하는 양식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이 그림은 육조시대에는 독립된 주제가 되었고, 당대에는 서아시아계 장식미술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화조화 양식이 있었으며, 화조화에 그려지는 꽃들은 친숙하고 아담한 아름다움 뿐 아니라 각각에 내재하는 상징성을 담아내고 있으며, 새들 또한 단순히 새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sup>27)</sup>

조선 초기의 작품인 신사임당의 초충도<그림-8>는 화려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필치의 설채법을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풀, 벌레, 나비 등을 소재로 하였으며, 간혹 원숭이나 쥐가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신사임당은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구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백을 활용하고 다양한 소재의 배치를 통하여 짜임새 있는 구성의 그림을 그렸으며, 정감 넘치는 색채를 사용하였다.<sup>28)</sup>

조선 중기의 화조화는 초기 작품들과는 달리 섬세한 묘사와 채색보다는 담묵을 사용하는 문인화 양식을 보인다. 특히 이 시대의 화조화는 닭이나 집오리 같은 가금류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서식하는 각종 야금류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선비 출신의 작가들이 그린 이러한 그림들은 대체로 그것을 통하여 그린 사람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양식을 수묵사의화조화(水墨寫意花鳥畫)라고도 부르며, 이는 조선 후기까지 계승되어 조영석의 까치 그림을 비롯한 다양한 화조화 작품들에 영향을 미친다.”<sup>29)</sup>

27) 임두빈(1998),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선사시대 암각화에서 현대미술까지*, 가람기획, pp.165-166

28) 이은상(1994), *사임당의생애와 예술*, 성문각, p.87

29) 안휘준(2007), *전계서*, p.206

화조화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조속을 들 수 있다. 그의 작품 노수서작도 <그림-9>를 보면 나뭇가지 위에 쌍을 이루며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새가 화면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길조로서 인식되는 까치를 주제로 하여, 수묵의 담백한 멋을 자아낸다. 화면의 구성은 얽은 농담의 물결법으로 배경의 나뭇가지와 잎들을 표현하였으며, 그림의 중심 주제인 까치는 진한 먹을 사용하여 대비적 구도를 이룬다.



<그림-9> 조속의 [노수서작도], 비단에수묵,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화조화는 지나친 격식과 과도한 표현 양식을 피하여 자연과 생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어, 소박한 멋과 미의식을 지향하는 한국적인 정감을 여실하게 나타낸다.

#### 4) 영모화

동물화의 시초는 원시시대 동굴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주로 호랑이, 소, 멧돼지, 사슴 등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바위에 새겨 표현하는 암각화의 양식을 보인다. 비록 동물의 모양새가 세밀하지는 않지만 그 특징만은 잘 살려내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 이렇듯 동물을 표현한 그림 양식은 영모화라는 장르로서 자리 잡는다. 영모화는 산수화 및 인물화와 더불어 회화 장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래 영모란 한자말은 ‘새깃 영(翎)’ 자와 ‘털 모(毛)’ 자가 합쳐진 말이다. 뜻을 풀이하면 ‘새의 깃털’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 그림만을 의미하였다.<sup>30)</sup> 하지만 후대로 오면서 두 글자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새의 깃을 뜻하는 영과 동물의 털을 뜻하는 모로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후 영모화는 새와 짐승을 소재로 그린 일반적인 동물화 양식 전체를 통틀어 가리킨다.

조선 초기의 영모화 장르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특히 독특한 강아지 그림으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던 두성령, 이암을 들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화조구자도<그림-10>는 그의 화풍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꽃과 나무를 배

30) 이원복(2005), 전계서, p.25



<그림-10> 이암의 [화조구자도] 종이에 담채, 16세기전반, 호암미술관



<그림-11> 김식의 [우도] 종이에 담채,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경으로 하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마리의 강아지를 주제로 다루었다. 무엇인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검둥이, 낮잠에 빠져 있는 누렁이, 벌레를 가지고 놀고 있는 흰둥이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색조와 구도를 통해 서정적인 정감을 자아내고 있다.

강아지들이 제한된 공간에 매여 있지 않고 확 트인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은 안견의 산수화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공간 개념을 드러내고, 바위표현에는 16세기 전반에 유행한 안견파의 단선점준이 나타나 있어 이암도 안견파 화풍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sup>31)</sup>

조선 중기의 영모화는 주제와 화풍의 측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소를 주제로 하는 그림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대 소 그림의 특색은 김식의 작품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의 우도<그림-11>를 살펴보면, 어미 소와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송아지를 산수를 배경으로 표현하였으며, 소박한 주제의식과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돋보인다. 근경의 언덕과 그 뒤편의 큰 나무 그리고 후경의 언덕이 이루는 공간 중앙에 주제인 어미 소와 송아지를 배치하여, 그림의 무게 중심을 중앙에 배치하는 시각적 효과가 돋보인다. 세부적인 묘사나

31) 이태호(1997),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pp.351~353





<그림-12> 변상벽의 [묘작도]  
 ,18세기 후반, 비단에 수묵채  
 색, 국립중앙박물관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배경을 이루는 언덕과 나무는 흑백의 대조가 심한 절과계 화풍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 그림은 조선 중기를 지나 18세기 초 후기에 이르러 윤희두서의 화풍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영모화로는 변상벽이 그린 두 마리의 고양이와 고목에 앉은 참새를 대상으로 한 묘작도<그림-12>를 들 수 있다. 이는 변상벽의 그림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완벽하고 정묘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화면 좌측에 배치된 고목을 오르던 고양이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바닥에 앉은 고양이는 고개를 들며 나무 위의 고양이로 시선을 향하고 있다.

새 앞이 돋은 고목의 잔가지에는 표정이 다른 여섯 마리 참새가 그려져 있다. 굵은 등지의 고목에서 봄을 느낄 수 있으며 두 마리 고양이는 앙증스런 표정으로 눈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뭇가지의 참새 떼는 두 마리 고양이의 신경전에는 무심한 듯 유유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화면의 주제인 두 마리 고양이는 그 표정과 동세뿐 아니라 세부 묘사에까지 세필로 묘사하였고, 완벽한 관찰력과 사실력으로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화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상벽의 뚜렷한 개성이 새로운 시대감각에 따라 조화를 이룬 것이다.<sup>32)</sup>

조선후기의 영모화에는 고양이 그림에 반드시 참새가 등장한다. 참새와 고양이는 복을 가져다준다 하여 양자를 함께 그려 넣어 복을 빌었다고 한다.<sup>33)</sup> 그러나 이와 같이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한국적 미의식을 지닌 영모화는 조선 후기 이후 화단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32) 이태호(1997), 전계서, pp.351~353

33) 고연희(2004), 전계서, p.58

## 5) 풍속화



<그림-13> 신윤복의[단오풍경],종이에 채색, 간송미술관

풍속화는 조선시대 서민 생활과 한국의 독자적인 화풍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다.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후기이다.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풍속화가 하나의 미술 형식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고 유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풍속화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며, 예술성만이 아니라 한국성, 기록성, 사료성, 시대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어느 분야의 그림보다도 역사와 문화의 보존적 측면에서 중요하

다.<sup>34)</sup>

그 중에서도 단원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익살과 해학 넘치는 풍속화로 표현하였고, 같은 시대의 풍속화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신윤복은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한량이나 기녀, 양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남녀 간의 애정을 섬세하고 세련되게 묘사하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유교적 규범이 엄했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 여성의 몸이나 남녀 간의 애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 그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장 한국적인 인상인 둥글 납직한 얼굴에 둥글둥글한 눈매, 흰 바지와 흰 저고리를 입은 서민이었다. 그중에서도 씨름도<그림-14>는 김홍도 풍속화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작이다.<sup>35)</sup> 구경꾼들은 화면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호선구도를 이루고, 중앙에 씨름하는 두 사람을 배치하였다. 왼쪽의 엿을 파는 소년은 씨름

34) 오주석(2003), 전개서, p.132

35) 이호재(1999), 알고 나면 한국 미술박사, 가나아트, p.160



<그림-14> 김홍도의 [씨름도], 수묵채색화,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그림-15> 김득신의 [파적도], 종이 바탕에 담채, 18세기, 간송미술관

과 무관한 듯 보이고, 오른쪽의 고무신과 짚신은 씨름하는 두 사람의 것으로 배치하여, 감상자에게 씨름이라는 주제이외에도 또 다른 그 시대의 풍습을 알려주고 있다. “김홍도에 의해 조선시대에 비로소 풍속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김홍도의 이러한 기량은 신윤복과 김득신에게 영향을 주어 조선시대 풍속화의 전성기를 낳게 되었다.”<sup>36)</sup>

김득신은 김홍도의 화풍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개척하였다. 그의 선은 부드러우며, 김홍도의 풍속화와는 달리 그려 넣은 배경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파적도<그림-15>는 “해학 미와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간략한 배경과 함께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있다. 시끌벅적한 상황을 그렸지만 깔끔하고 가는 선의 수려함으로 인해 그림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다. 김득신의 소재의식과 그에 걸맞은 표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sup>37)</sup>

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풍속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화가로 담졸(淡拙) 강희언이 있다. 선비나 중인층의 생활상을 담은 강희언의 풍속화는 세심한 인물표정,

36) 임두빈(1998), 전계서, p.231

37) 이태호(1997), 전계서, pp.238~239



<그림-16>강희언의[사인삼경-사인회호]  
, 지본의 담채, 개인소장

조심스런 선묘의 의습 처리, 각각의 광경을 잡아내는 화면구성 등 강희언 다운 기풍이 엿보인다. <그림-16>에서 맨 위쪽, 갓을 쓰고 구경하는 이가 바로 강세황일 것이다. 정선의 진경산수와 조영석 이후에 일반화된 형식인 부감법으로 대청마루를 표현하고 마루 위의 네 사람은 두 사람씩 마주하여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큰 족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두 자루의 붓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양필법을 구사한 정선일 것이다. 윗 옷을 벗고 화첩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보면 개방적이고 솔직한 현장감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정선과 비슷한 연배의 인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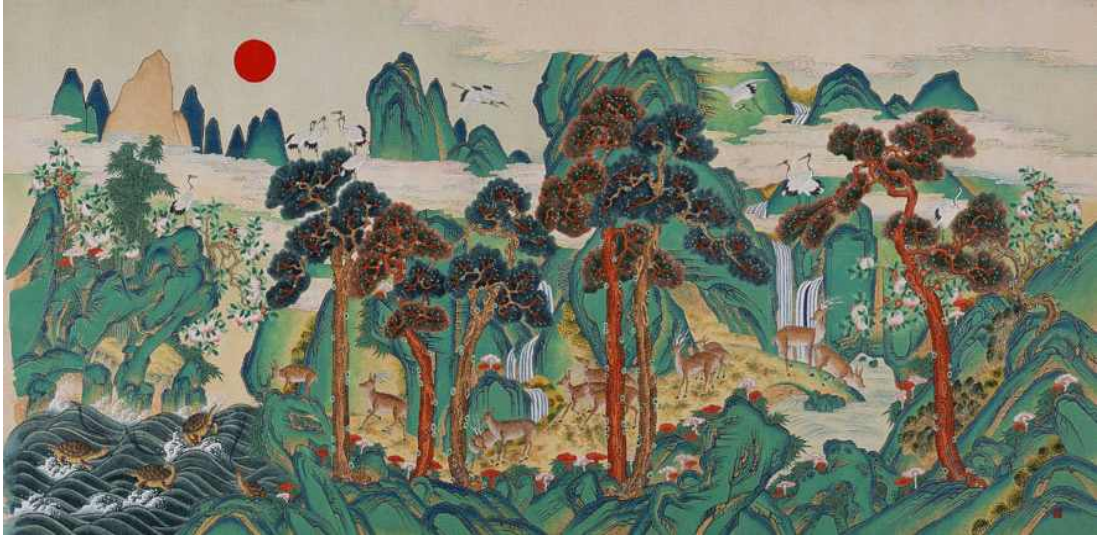
조영석으로 보이고, 그 위쪽으로 연습지에 양손을 모으고 붓질하는 소년은 김홍도로 보인다.<sup>38)</sup> 이곳에서 다루지 않은 조선 후기와 말기의 풍속 인물화를 그린 작가로는 윤두서, 윤덕희, 윤용 일가와 조영석, 김두량, 강희언, 유운홍, 김준근 등이 있다.

## 6) 민화

민화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민중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림으로, 정통회화같이 잘 그리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예술적 욕심이 없이 소박한 생활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전해 내려오는 도상의 틀을 존중하면서 그린 것이 민화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따라서 민화 속에는 일반 백성들의 삶과 신앙, 멋이 깃들여 있다. 민화는 오로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여타 장르의 그림에 비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사대

38) 이태호(1997), 전개서, pp.193~195

39) 김영주(1997), 한국미술사, 나남출판, pp.312~314



<그림-17>작가미상의 [십장생도 10곡병], 조선시대, 서울역사박물관

부 계층의 산수화나 직업화가인 화원의 작품은 대개 감상의 대상으로서 자리한다. 그러나 민화는 주로 실내 장식이나 소품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민화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혼례식이나 환갑잔치를 치를 때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십장생도<그림-17>는 민간신앙이나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사물을 그린 그림이다. 주로 신년에 새해를 축하하고 복을 기원하거나 회갑 때 장수를 기원하며, 열 가지의 자연물을 일률적인 도안과 정해진 형식으로 그린 다음, 진하고 화려한 채색을 가미하여 장식적인 성격을 강조한다.<sup>40)</sup>

민화를 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식 과정을 거쳐 교육 받는 도화서의 화원이 아니라, 타고난 재주가 있으나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민화는 대부분 작자미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류의 작가 층이 주로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는 그림을 제작하였고, 이들 외에도 훈련된 화원들이 인습적인 경향의 민화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sup>41)</sup>

민화에는 다른 그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통 회화와 비교해서 묘사나 세련미나 격조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하

40) 정병모(2011),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pp.296~304

41) 안휘준(2001), 한국회화의이해, 시공사, pp.332~334



<그림-18> 작가미상의[까치와 호랑이], 종이에채색, 조선시대

여기에서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조인 동시에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서낭신의 심부름꾼이며, 호랑이 역시 서낭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sup>43)</sup> 호랑이의 모습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해부학적 비례에 따르지 않은 채 작가의 심상에 따라 자유로운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도 독특한 무늬를 비롯한 신체적 특징은 비교적 섬세하게 그려졌다. 호랑이의 얼굴에서 드러나듯,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그리고 이빨은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솜씨가 미숙해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민화의 매력이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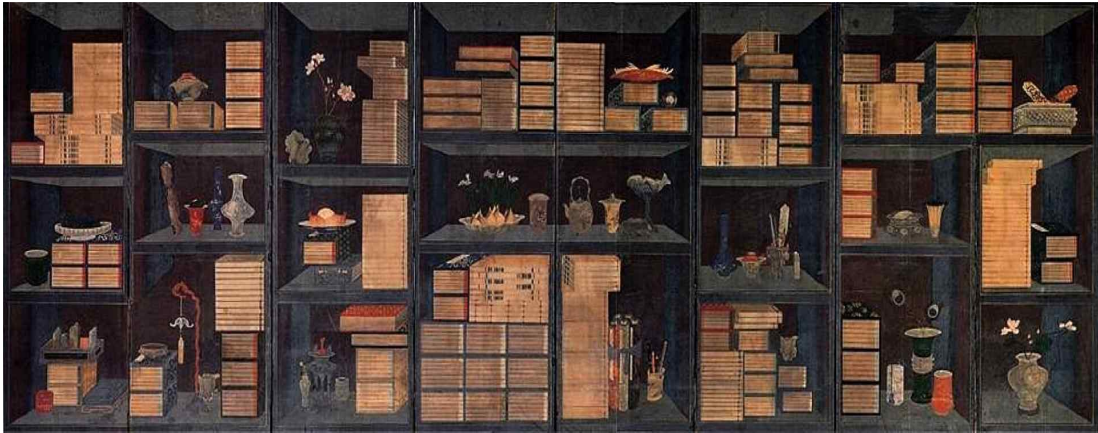
민화 중에서도 책가도 그림은 학문을 숭상했던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낳은 그 독특한 조형성으로 인하여 가치 높다. 책가도<그림-19>에서 알 수 있듯이 문방사우와 그 외의 여러 기물을 책 중심으로 나열한 그림이며, 부르는 명칭도 서가도, 문방도, 책거리 그림 등으로 다양하다.

책가도의 사물들은 서양화의 영향을 받아 마치 실물처럼 보이도록 입체감 있고 원근감 있게 그려졌는데, 이는 그동안의 조선 정통회화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또한 서책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숭상하는 조선의 정서상, 문인들의 면학이나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이 되었다. 그 외의 추가로 그려

42) 윤열수(2005), 꿈꾸는 우리민화, 보람출판사, p.12

43) 윤열수(2005), 상계서, p.12

44) 장세현(2014), 전계서, p.110



<그림-19>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8폭 병풍], 종이에 채색, 19세기, 호암미술관

지는 기물들에 따라 다양한 축원의 의미도 포함되어있다.<sup>45)</sup>

이상으로 조선 시기의 다양한 회화 장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는 한국 회화 역사상 독창적인 양식이 활발히 전개되며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한국화의 가치를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교육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미의식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5) 이일수(2014),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시공사, p.332

## IV. 한국화 수업을 하기 위한 미술수업 교수-학습

본 장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한국화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화의 표현을 위해 각 장르별로 나누어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풍속화, 민화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한다.

### 1. 미술수업 지도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교육은 서양위주의 학과로 편성되어 있어 미술교육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sup>46)</sup> 라고 명시되어 있다. 초등 교육 과정은 아동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특히 미의식의 확립과 정서 순화를 위해 전통미술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화의 특징을 이해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전통미술을 쉽게 접하고 표현하며 조선시대 회화를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 1) 단원의 연구

##### (1)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교육이 외국미술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

---

46) 교육부(20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리의 독자적인 미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 미술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총체적인 안목을 가진 문화인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화의 교육적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화 표현지도를 통하여 한국화만이 갖는 자연주의적인 미의식과 자연의 근원적인 모습을 표현하려는 조형방법, 이에 따른 선과 여백에 의한 직관적인 표현기법 등을 체험해 봄으로써 전통미술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이해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화 중에서도 유교와 실학의 영향으로 실용적이고 소박한 미술 문화를 꽃피운 시기인 조선시대 미술을 통해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 다양한 재료와 표현을 이해하면서 전통미술의 독창성을 느껴보며, 한국화 표현양식과 기법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화 표현이 어렵고 자신감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 한국화의 기법을 쉽게 적용시키고 이를 통해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여 아동의 수준에 적합한 한국화표현활동의 프로그램(교수-학습지도안)을 계획하였다.

## (2) 수업계획

- ①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ㄱ’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1~2학년 50명
- ② 적용기간 : 2014년 9월 11일 ~ 2015년 2월 26일
- ③ 적용방법 : 5주간, 1주일에 2번 각 5차시로 구성된 수업

## (3) 학습목표

- ① 전통미술을 접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 ②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통하여 전통미술의 표현기법을 이해를 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아동 내면의 잠재된 생각을 표출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한국화 양식 및 특징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른다.

## (4) 지도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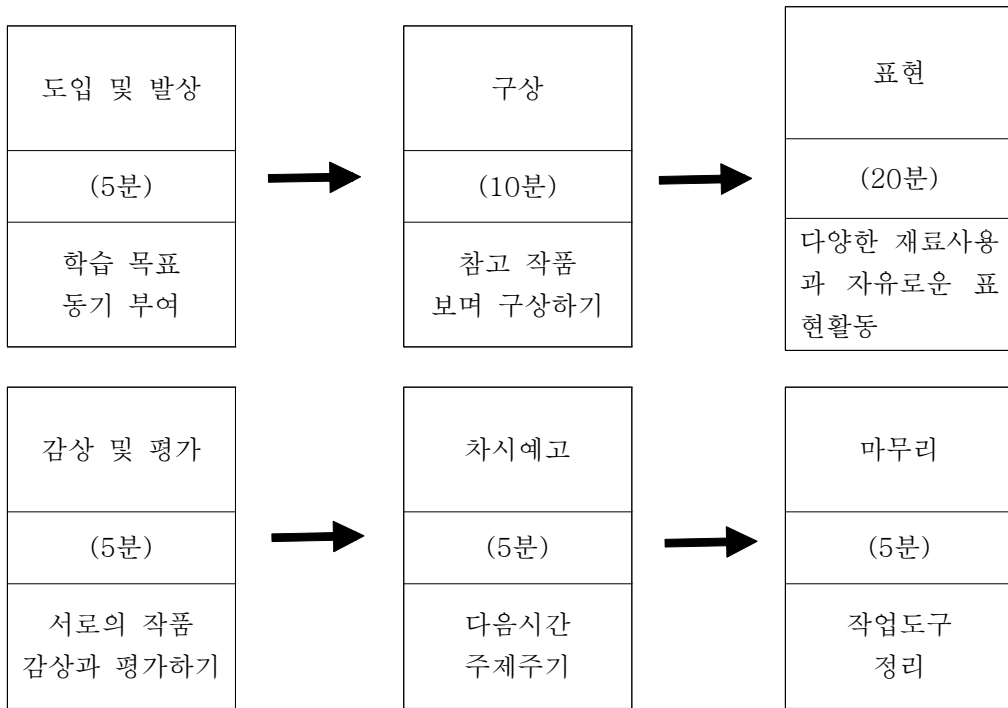
- ①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알고, 준비 및 관리에 대해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② 교사는 보조적 역할로 방향만 제시하고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③ 아동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먹물은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므로 앞치마를 입고 수업에 임하도록 한다.
- ⑤ 다 그린 작품은 그들에 잘 말려 번짐이 없도록 한다.

(5) 수업 모형

한국화 수업에 맞게 표현활동의 모형을 재구성하여 <표-3>같이 제시하였다.

<표-3> 수업모형



(6) 학습계획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선시대 회화에 관한 수업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화 감상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전통재료 및 모필을 사용하여 한국화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제안하는 교수 학습 과정 안을 통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차시 지도 계획은 <표-4>과 같다.

<표-4> 차시별 교수 - 학습 계획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1	산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감상하고 산수화에 담긴 옛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산수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그릴 수 있다.</li> </ul>
2	초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초상화를 그려보고 표현해 본다.</li> <li>• 자신의 얼굴을 잘 관찰하여 느낌과 특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해 본다.</li> </ul>
3	영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영모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li> <li>• 점묘법을 이용하여 동물화를 그려본다.</li> </ul>
4	풍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홍도의 풍속화를 감상하여 그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li> <li>• 김홍도의 여러 작품을 이용하여 풍속화를 표현해 본다.</li> </ul>
5	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성을 찾아본다.</li> <li>• 다양한 재료를 통해 채색을 하고 민화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li> </ul>

<표-4>에서는 이 수업지도안을 바탕으로 단원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단원 설정 및 교수 학습지도안을 1~5차시로 작성하였다.

## 2. 한국화 활동을 위한 사전조사

다음은 학습자가 한국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사전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이다.

(N=50)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1. 미술과목을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8	16
	좋아한다.	19	38
	보통이다.	17	34
	싫어한다.	4	8
	아주 싫어한다.	2	4

미술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파악하는 질문으로써 50명의 아동 중에 아주 좋아한다. 16%, 좋아한다. 38%, 보통이다. 34% 싫어한다. 8%, 아주 싫어한다. 4%에 해당한다. 미술과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N=50)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2. 미술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흥미와 관심이 있습니까?	한국화	4	8
	서양화	3	6
	디자인	28	56
	감상	15	30

미술 영역 중에서 디자인 분야가 흥미와 관심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감상 30%, 한국화 8%, 서양화 6% 순이며, 한국화는 아동들에게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50)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3. 한국화는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다.	알고있다.	21	42
	보통이다.	18	36
	모른다.	11	22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국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전혀 모른다 의 경우도 22%로 나타났다.

(N=50)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3-1. 알고 있다면 어디서 보았나요?	TV	4	8
	책	19	38
	미술관	10	20
	기타	17	34

한국화를 교과서, 동화책, 만화 등 다양한 책을 통해 접한 아동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TV, 미술관 관람을 통해서는 28%이며, 기타 34% 나타났다.

(N=50)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4. 한국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다.	있다.	39	78
	없다.	11	22

한국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78%로 그려 본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50)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5. 한국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 아동 중,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배워 볼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	21	42
	없다.	29	58

미술수업 중에서도 한국화는 재료사용, 표현기법 등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이다. 한국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 아동 중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배워 볼 생각이 있다 42% , 없다 58% 한국화 수업을 거부하는 반응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수업은 이번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하였으며, 한국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아동을 위해 한국화를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으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 3. 학습지도안 및 학습 결과물

본 절에서는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풍속화, 민화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 아동의 작품 결과물을 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 1) 산수화

<표-5> 산수화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단원 및 차시	대단원	한국화	차시	1/5 (50분)
	소단원	산수화	대상	초등학생1,2
학습 목표	1. 안건의 ‘몽유도원도’, 겸제정선의 ‘금강전도’를 감상하고 산수화에 담긴 옛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산수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그릴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 장지, 붓펜, 인주		
	학생	연필, 지우개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동기 유발	● 동기유발 - 산수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겸제정선의 금강전도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두 작품을 같은점과 다른점 찾아본다.		- PPT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 안건의 ‘몽유도원도’, 겸제정선의 ‘금강전도’를 감상하고 산수화에 담긴 옛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산수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그릴 수 있다.		

<p>전개 (30 ` )</p>	<p>활동.1</p> <p>활동.2</p> <p>활동.3</p> <p>활동.4</p> <p>활동.5</p>	<p>● 재료설명 - 장지설명 - 붓펜설명 - 낙관설명</p> <p>● 아이디어 구상 - 내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아이디어 구상한다.</p> <p>● 밑그림 - 아이디어 구상 바탕으로 장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p> <p>● 먹선 그리기 - 붓펜 으로 다양한 먹선 으로 표현하기.</p> <p>● 낙관 - 인주로 지장을 찍어 낙관을 한다.</p>	<p>-재료 설명 후 사용방법 설명</p> <p>- 인주가 번지지 않게 주의</p>
<p>정리 (15 ` )</p>	<p>학습 정리</p>	<p>● 정리하기 - 개인작품 설명 - 차시예고 - 주변정리 - 인사</p>	



<표-6> 산수화 작품평가



그림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지난날의 생활과 자연의 경관을 표현하고자 그림 중간에 ‘옛날집’이라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적어 보았고, 옛날엔 교통수단이 없는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등에 짐을 지고 산을 타고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풍속 산수화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정겨운 산수화를 표현하였다.



붓펜의 사용이 능숙하여 선의 강약과 모필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덧칠을 하였고, 다양한 표현을 위해 가는 선을 사용하는 등, 표현이 다채롭다. 다양한 선의 움직임에서 거리감, 입체감 뿐만 아니라 리듬감까지 나타내서 그림 그리는 아동의 즐거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



아동이 생각하고 있는 산은 무덤이 있던 곳과 등산을 하면서 정상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야호”라고 외치던 곳으로 추측된다. 산을 오르는 길에 있었던 검은 돌과 나무들, 흐르던 물들과 고여 있는 연못을 표현하였다.



아빠와 함께 서귀포의 산을 생각하고 그려보았다. 큰 산을 오르기 위해 계단을 걸었던 것과 검은돌, 나무, 흘러내리던 물줄기를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한국화 재료를 처음 접해본 아동들은 두껍고 질긴 장지와 부드러운 붓펜에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안건과 정선의 작품을 비교해보면서 두 작품의 차이점, 특징,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신이 상상하거나 경험하였던 산수화를 표현하였다.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문방사우의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붓펜으로 대체하여, 이를 처음 다루는 아동들도 편리하게 다룰 수 있었다. 주제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2) 초상화

<표-7> 초상화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단원 및 차시	대단원	한국화	차시	2/5 (50분)
	소단원	초상화	대상	초등학생1,2
학습 목표	1.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초상화를 그려보고 표현해 본다. 2. 자신의 얼굴을 잘 관찰하여 느낌과 특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해 본다.			
학습 자료	교사	PPT, 장지, 먹물, 붓, 이쑤시개, 면봉, 파스텔		
	학생	연필, 지우개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 )	동기 유발	● 동기유발 - 인물화 중 초상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 윤두서의 자화상을 감상하고 설명한다. - 신윤복의 미인도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두 작품을 같은점과 다른점 찾아본다.		- PPT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초상화를 그려보고 표현해 본다. - 자신의 얼굴을 잘 관찰하여 느낌과 특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해 본다.		
전개 (30 ` )	활동.1	● 재료설명 - 장지설명 - 먹물 설명 - 붓 설명 - 이쑤시개 설명		-재료 설명 후 사용방법 설명

	<p>활동.2</p> <p>활동.3</p> <p>활동.4</p> <p>활동.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봉 설명</li> <li>- 파스텔 설명</li> <li>●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울을 보며 얼굴을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한다.</li> <li>- 여러 가지 표정 지어보기</li> </ul> </li> <li>● 밑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울을 보고 장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li> </ul> </li> <li>● 먹선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밑그림을 마치면 먹물과 물을 조절하여 다양한 색감과 선의 굵기로 그린다.</li> <li>- 머리카락, 눈, 코, 입 등 자세히 그려야 하는 부분은 면봉, 이쑤시개로 세밀하게 그려준다.</li> </ul> </li> <li>● 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스텔로 가볍게 색칠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히 관찰하기</li> </ul>
<p>정리 (15 `)</p>	<p>학습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작품 설명</li> <li>- 차시예고</li> <li>- 주변정리</li> <li>- 인사</li> </ul> </li> </ul>	

<표-8> 초상화 작품 평가

	<p>머리카락을 자세히 표현하기위해 이쑤시개를 사용하였다. 표현력은 제일 부족하였지만,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목구비의 표현에 집중하였다.</p>
	<p>아동들은 신체 일부를 탐색하기 좋아한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제일 예뻐 보이는 부분인 눈을 크게, 속눈썹은 길게 그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p>
	<p>자신이 해적이 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억세고 힘이 강한 인상으로 보이기 위해 눈을 치켜 올렸으며, 이를 뽐족하게 하여, 자신을 리더십이 있는 무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p>
	<p>먹물사용을 어려워했던 아동이다. 얼굴선을 그릴 때 둔탁하고 번짐 있는 필선을 보였다. 여자 아동들이 비슷한 모습의 눈을 그리는 것은 전 도식기와 도식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p>

초상화 수업에서는 자신의 얼굴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표현력과 묘사력을 기를 수 있었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위해 붓, 이쑤시개, 면봉을 이용하여 선의 특징을 표현하였고, 그중 면봉은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아 아동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였으나, 이쑤시개는 먹이 잘 묻지 않아 불편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스텔을 이용하여 채색하였다. 파스텔은 아동들이 많이 사용해 보았기에 쉽게 다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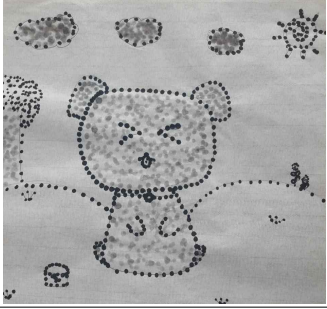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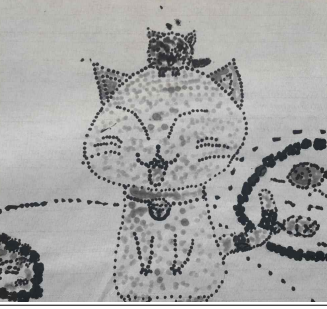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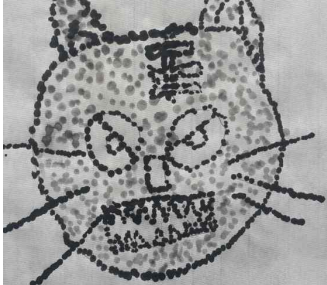
3) 영모화

<표-9> 영모화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단원 및 차시	대단원	한국화	차시	3/5 (50분)
	소단원	영모화	대상	초등학생1,2
학습 목표	1. 조선시대 영모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2. 점묘법을 이용하여 동물화를 그려본다.			
학습 자료	교사	PPT, 화선지, 먹물, 면봉		
	학생	연필, 지우개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 )	동기 유발	● 동기유발 - 영모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 이암의 화조구자도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변상벽의 묘작도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두 작품을 같은점과 다른점 찾아본다.		- PPT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 조선시대 영모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 점묘법을 이용하여 동물화를 그려본다.		
전개 (30 ` )	활동.1	● 재료설명 - 화선지 설명 - 먹물 설명 - 면봉 설명		-재료 설명 후 사용방법 설명
	활동.2	● 표현방법 - 점묘법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해본다. - 농담의 개념과 이해를 해본다.		

	<p>활동.3</p> <p>활동.4</p> <p>활동.5</p>	<p>● 아이디어 구상</p> <p>-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주제로 아이디어 구상한다.</p> <p>● 밑그림</p> <p>- 아이디어 구상 바탕으로 화선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p> <p>● 표현하기</p> <p>- 면봉을 이용하여 점묘법으로 농담을 표현해준다.</p>	
<p>정리 (15`)</p>	<p>학습 정리</p>	<p>● 정리하기</p> <p>- 개인작품 설명</p> <p>- 차시예고</p> <p>- 주변정리</p> <p>- 인사</p>	

<표-10> 영모화 작품평가

	<p>캐릭터 강아지를 선택하였고, 풍경화 까지 그려주어 화면이 가득 차게 표현하였다.</p>
	<p>돼지의 특징을 잘 살려 그렸다. 바깥선과 얼굴을 진하게 표현하였고, 피부 표현은 연한 먹으로 서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p>
	<p>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큰 고양이와 작은 새끼고양이를 그려 넣어 재미를 주고 있다. 고양이 뒤에는 작은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풍경까지 그려주었다.</p>
	<p>호랑이의 얼굴을 화면에 가득 차게 표현하였다. 호랑이의 무서운 눈과 이빨을 날카롭게 그려주었다. 호랑이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p>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주제로 영모화를 그려보았다. 일정한 점을 나타내기 어려운 점묘법을, 면봉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규칙적으로 점을 찍어 표현해 보았고, 잘 번질 수 있는 화선지를 사용하여 쉽게 농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묘법을 통해서 동물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한국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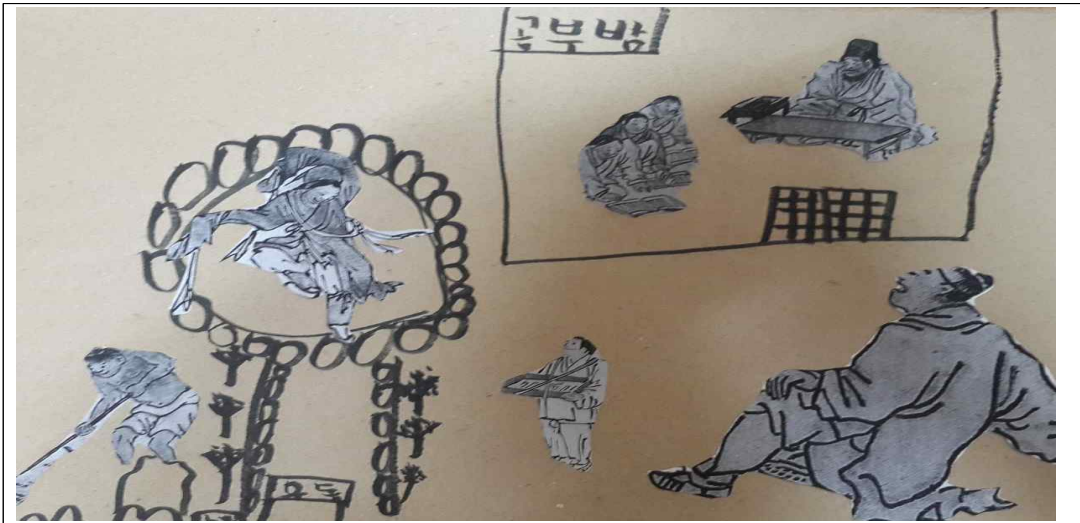
4) 풍속화

<표-11> 풍속화 교수-학습 과정안 (4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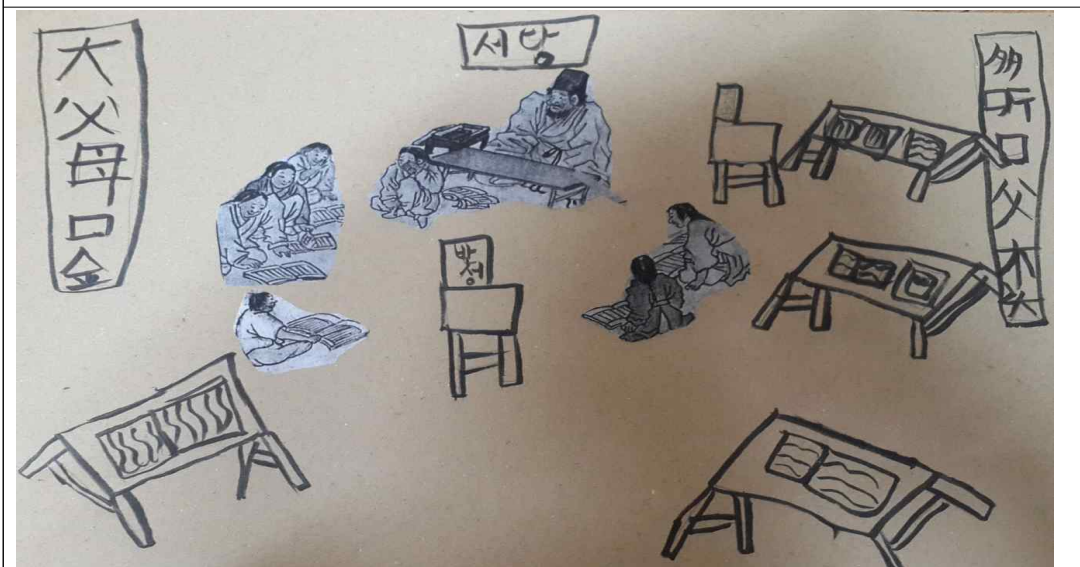
단원 및 차시	대단원	한국화	차시	4/5 (50분)
	소단원	풍속화	대상	초등학생1,2
학습 목표	1. 김홍도의 풍속화를 감상하여 그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2. 김홍도의 여러 작품을 이용하여 풍속화를 표현해 본다.			
학습 자료	교사	PPT, 소포지, 풍속화 이미지, 붓펜		
	학생	풀, 가위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	동기 유발	● 동기유발 - 풍속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 김홍도의 씨름도, 서당, 무동을 감상하고 설명한다. - 세 작품에서 같은점과 다른점 찾아본다.		- PPT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 김홍도의 풍속화를 감상하여 그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 김홍도의 여러 작품을 이용하여 풍속화를 표현해 본다.		
전개 (30 `)	활동.1	● 재료설명 - 소포지 설명 - 풍속화 이미지 설명		-재료 설명 후 사용방법 설명

	<p>활동.2</p> <p>활동.3</p> <p>활동.4</p>	<p>- 붓펜 설명</p> <p>● 학습내용 제시</p> <p>- 마음에 드는 작품 이미지를 고른다.</p> <p>● 아이디어 구상</p> <p>- 주제를 정한다.</p> <p>- 인물을 오려서 배치한다.</p> <p>● 제작</p> <p>- 화면을 구성하여 붙인다.</p> <p>- 붓펜을 이용하여 주변 배경을 자세히 더 그린다.</p>	<p>- 똑같은 작품이 2,3개 중복되어도 상관없음</p>
<p>정리 (15 ` )</p>	<p>학습 정리</p>	<p>● 정리하기</p> <p>- 개인작품 설명</p> <p>- 차시예고</p> <p>- 주변정리</p> <p>- 인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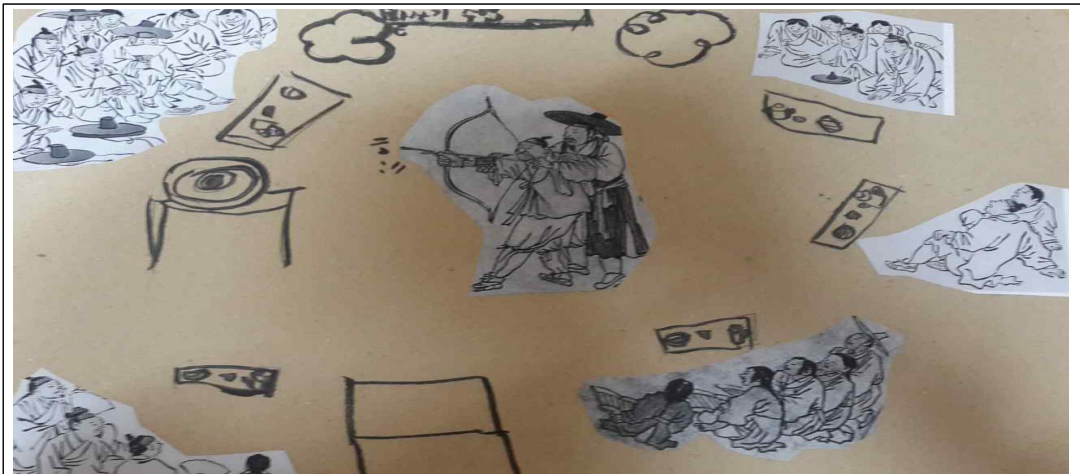
<표-12> 풍속화 작품 평가



오른쪽화면에는 서당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왼쪽에는 돌담을 쌓아서 무대로 만들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동을 그렸다. 그 옆에 받을 일구는 농부와 씨름에 등장하는 옛 파는 소년 등, 여러 가지 풍속화를 한 그림에 옮겨 놓아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서당도의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책상과 의자를 더 추가하여, 현재 학교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그렸다.



활쏘기를 재구성하였다. 중간에 과녁을 그려 넣어 활쏘기 수업이 진행 중이다. 둥글게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구도는 씨름의 풍속화에서 차용하였다.



서당도와, 무동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서민들의 축제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왼쪽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팔려고 나온 장사꾼을 그려 화면 전체를 가득 차게 그렸다.

풍속화는 조선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어, 아동들이 당시 서민의 생활상을 배움과 동시에 한국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현대와 과거의 생활상을 비교해 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본 뒤, 이를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다. 옛 그림의 정취를 살리기 위해 소포지를 이용하였고, 풍속화에 나타난 여러 인물 가운데 자신의 설정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여 화면에 각각 재배치함으로써, 스토리 구성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5) 민화

<표-13> 민화 교수-학습 과정안 (5차시)

단원 및 차시	대단원	한국화	차시	5/5 (50분)
	소단원	민화	대상	초등학생1,2
학습 목표	1. 민화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성을 찾아본다. 2. 민화를 모사 해본다. 3. 다양한 재료를 통해 채색을 하고 민화를 개성 있게 표현해 본다.			
학습 자료	교사	PPT, 화선지, 붓펜, 수채도구, 크레파스		
	학생	연필, 지우개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동기 유발	● 동기유발 - 민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 까치와 호랑이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모란도를 감상하고 설명한다. - 두 작품을 같은점과 다른점 찾아본다.		- PPT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목표 - 민화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특성을 찾아본다. - 민화를 모사 해본다. - 다양한 재료를 통해 채색을 하고 민화를 개성 있게 표현해 본다.		
전개 (30`)	활동.1	● 재료설명 - 화선지 설명 - 붓펜 설명 - 수채도구 설명		-재료 설명 후 사용방법 설명

	<p>활동.2</p> <p>활동.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레파스 설명</li> <li>● 밑그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에 드는 작품 이미지를 고른다.</li> <li>- 창문에 작품이미지와 화선지를 붙여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li> <li>- 붓펜으로 자세하게 밑그림을 그린다.</li> </ul> </li> <li>● 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감,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색칠한다.</li> </ul> </li> </ul>	
<p>정리 (15 ` )</p>	<p>학습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작품 설명</li> <li>- 차시예고</li> <li>- 주변정리</li> <li>- 인사</li> </ul> </li> </ul>	

<표-14> 민화 작품 평가

	<p>모란꽃을 화면 가득 채워 그렸다. 사방으로 펼쳐진 꽃으로 인해 화면의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고 생동감이 넘친다.</p>
	<p>모란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단순한 구도와 배치, 꽃의 다양한 색감 등 표현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p>
	<p>까치와 호랑이 특징을 잘 표현하였다. 실제 민화의 모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세밀하게 표현하였다.</p>
	<p>까치와 호랑이를 다양한 색상으로 대체하여 채색하였다. 색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었고, 단순한 선과 색의 표현에서 독특한 개성이 넘친다.</p>

‘까치와 호랑이’, ‘모란도’를 통해서 민화에 내재된 상징성과 미적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림을 모사하기 위해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대부분 여자아동들은 ‘모란도’, 남자아동들은 ‘까치와 호랑이’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작품을 창문에 붙이고 잘 보이는 화선지를 겹쳐서 밑그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동들은 새로운 밑그림 방법에 흥미를 보였으며, 전통회화에서 배웠던 수묵과는 달리 민화 작업 과정에서는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 4. 한국화 수업 후 종합논의

현재 초등교육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화 수업은 주로 작품 감상의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아동들은 한국화의 용구와 재료의 사용법을 실습한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실기 수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들에게 전통미술을 알리기 위해 한국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과 후 수업 과정을 통해 한국화 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한국화 용구는 수업 대상인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에게는 다소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료를 통해 한국화를 표현해 보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미술 수업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임한 아동들은 한국화의 재료인 화선지, 장지, 먹 등에 호기심을 보였고, 다양한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흥미를 느껴, 지속적으로 한국화 표현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국화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을 위해, 모든 수업은 실기 활동에 임하기에 앞서, 아동들이 그 준비단계로서 한국화의 기본재료와 여러 가지 용구의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주제에 맞는 표현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1차시 산수화 수업에서는 얇고 섬세하여 다루기 힘든 화선지보다는 두껍고 질겨 접근성이 용이한 장지에 부드러운 붓펜을 사용하여 산수화를 그렸다. 아동들은 처음 접해보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차시 초상화수업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여 먹물과 붓을 통해 초상화를 그려 보았다. 작업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필선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물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쑤시개나 파스텔 등, 붓 이외의 다른 용구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아동이 자신의 의도와 부합하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3차시 영모화 수업에서는 얇은 화선지에 면봉을 통해 발묵의 효과를 나타내 보았다. 그 결과 먹의 농담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4차시 풍속화 수업에서는 재질이 다른 두 종류의 종이를 사용하여 콜라주를 표현하여, 자신만의 특색 있는 풍속화로 화면을 재구성해보았다.

5차시 민화 수업에서는 아동들이 접근하기 쉬운 작품으로 ‘모란도’와 ‘까치와 호랑이’를 선택하여 모사하였다. 화선지에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 효과를 표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색을 활용하는 환경인만큼, 전 수업 과정 중 아동들이 가장 큰 열의를 보였으며, 평가 시간에도 자신감을 보이며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한 결과, 아동들은 평소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한국화 수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다는 점에 흥미와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실기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수업 지도에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는 수업 내용을 숙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아동들의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위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기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작품의 주제, 대상의 특징, 색채의 사용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여 흥미와 관심이 지속되도록 한다. 또한, 문방사우를 사용하기에 미숙한 아동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화의 기초적 용필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화의 기본적인 주재료인 먹과 한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작품의 소재를 자신의 생활 가운데에서 찾도록 하여, 한국화의 소재가 비단 전형적인 산수풍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한국화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닌,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그림이라는 점을 알려줄 수 있다.

넷째, 교사와 아동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교사는 아동들의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화 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화 실기 수업을 진행한 결과, 아동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루기 쉬운 즉,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도구를 택함으로써 필자의 예상보다 더욱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동들 역시 자신의 표현 활동과 작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작품평가 시간에 작품을 자신감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폭넓은 미적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아동들은 미적감성 및 심미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그림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향상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정서가 안정되어 집중하는 차분한 학습태도가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미술의 계승에 한층 기여하고, 또한 한국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주체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한국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한국화 교육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미술과 교육과정 속에서 한국화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과정 전반에서 한국화를 강조하였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동시에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전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선 교사들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지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체계적 지도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학교 미술교육의 제한점을 보충 · 보완하는 역할로서 방과후학교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교육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한국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화 사전조사 결과 아동들은 한국화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한국화 표현을 각 장르별로 나누어 다양하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화 수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동들이 한국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한국화에 대해 친숙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화 교육 지도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실기 수업 전, 한국화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시청각자료를 제시하여, 아

동들의 흥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재를 생활주변이나 관심사로 정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 선정에 부담을 덜어 주어 보다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화 표현양식을 소재에 따른 장르별 특징으로 나누어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고취시키고, 아동들이 다양한 한국화 표현기법을 통해 어렵고 지루한 한국화 수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재료를 통해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특징과 표현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넷째, 작품평가에서 점점 자신감을 보이는 아동이 많아졌으며, 한국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즐거움과 자신감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으며, 한국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에서 한국화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속에 한국화 교육 내용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야 하며, 교과서에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참고 작품을 더 많이 수록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안과 자료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

둘째, 어렵고 지루한 한국화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확장 시켜 전통회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셋째, 한국화 표현 활동은 단순한 기능 학습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한국화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초등교육과정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도방안이 연구된다면 기존의 획일화된 한국화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국화에 흥미를 느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한국화 수업 지도방식과 방안에 대한 개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 고연희(2013),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다섯수레
- 김영주(1997), 「한국미술사」, 나남출판
- 박영대(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그림 백가지」, 현암사
- 박용숙(2001),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 안휘준(2001),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 안휘준(2001),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 안휘준(2009), 「안견과 몽유도원도」, 시사평론
- 안휘준(2010), 「청출어람의 한국미술」, 사회평론사
- 오주석(2003), 「한국미특강」, 솔출판사
- 오주석(1999),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1」, 솔출판
- 윤열수(2005), 「꿈꾸는 우리민화」, 보람출판사
- 이은상(1994), 「사임당의생애와 예술」, 성문각
- 이일수(2014),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시공사
- 이원복(2005), 「한국美의 재발견·6」, 솔
- 이태호(1997),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교재
- 이호재(1999), 「알고 나면 한국미술박사」, 가나아트
- 임두빈(1998),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선사시대 암각화에서 현대미술까지」,  
가람기획
- 장세현(2014), 「풍속화에서 사군자까지 한눈에 반한 우리 미술관」, 사계절
- 정병모(2011),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 조용진(1993), 「채색화 기법」, 미진사
- 허영환(1978), 「동양화 1000년」, 열화당

<학술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정  
평가원

교육부(2009), “2009년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다시 보는 우리초상의 세계”- 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김홍원(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교육청(2006), “서울방과후학교 운영기본계획”

서울시 교육청(2012),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제주도 교육청(2012),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배상훈(2006), “방과후학교는 우리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교육개발. 겨울호(1),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 “2014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12월 호/ 통  
권32호)

<학위논문>

이은화(2010),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개선방에 대한 강사의 인식연구”, 건국대학  
교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fter School art lesson plans study program  
- Focusing on Korean painting expressive activities -

Ji-Hye Boo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The education of Art improves our thoughts through an experience like an aesthetic act, a pleasure of drawing explicit, a new creation, or etc, and it has purpose on growing an 'all-natured people' to develop the Art culture.

Also, in this fast growing cross-cultural world, we need to focus on a traditional art in an elementary school art education procedure to make the students sure their ethical personality.

In this way, korea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traditional art, from the 4th education procedure to the 9th, in each sections, but today, we primarily teach an aesthetic design, texture, modern art, and western art with the textbook.

In addition, the 'Korea Drawing' class, which is one of our traditional art educationl have low level of possession of aesthetic techniques, limited time, and space.

In such an education process, the students have less chance to learn the traditional art, and, it causes people have stereotypes about how hard and unfamiliar the 'Korea Drawing' is.

So, we will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n 'after-school

program' which offers more flexible conditions than an official art class does.

In this experiment, from early stage in an elementary school, we start the study under the conscious of 'Korea Drawing' would be educated as a part of Korea cultural senses.

The study takes the first and second grades students in Jeju island, applying divergent teaching skills to make them feel familiar to the traditional art and have fun with an easy-learning the Drawing.

The following process will show how the study experiment worked.

Fist of all, the kids had no interests in Korea Drawing at the result.

So we set the priority to create an easier and more effective way to teach the Drawing.

Besides, we searched some records related to the Korea Drawing, to find proper video files and learn about the Drawing's specialty and a method of explanation.

Ssecond, in such procedures, we applied the study in reality.

As we classified the Korean Drawing art skills into some kinds of materials to educate them, the kids were interested in a traditional art with newly understanding and able to learn various drawing techniques.

Third, we helped them broke the boundary of using only 'paintbrush' to draw.

They widely understood of drawing materials through a practice of using 'toothpick, cotton stick, paintbrush pen' and etc.

As mentioned above, these various drawing classes helped the kids more easily approached to a traditional art and culture.

And they also percept those art and cultures are parts of our living natures, not just 'watch only' things in an art book or a museum.

In such procedures people will more easily understand and be approach to Korean Drawing, deeply interested in a tradition and culture.



As a consequence, we focused on offering a chance to newly apply and understand the Korean traditional and cultural art in our experiment. Kids would pay attention to the Korean Drawing education.

When such well-organized education program will be widely applied throughout a whole country, children would have high-level of ethical attitudes, minds, and thoughts in a competitive world.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5. 8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한국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술 과목을 좋아한다.

- ① 아주 좋아한다.
- ② 좋아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싫어한다.
- ⑤ 아주 싫어한다.

2. 미술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흥미와 관심이 있습니까?

- ① 한국화
- ② 서양화
- ③ 디자인
- ④ 감상

3. 한국화가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보통이다.
- ③ 모른다.

3-1 알고 있다면 어디서 보았나요?

- ① TV    ② 책    ③ 미술관

4. 한국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 한국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 아동 중에,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배워 볼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감사 합 니 다 -